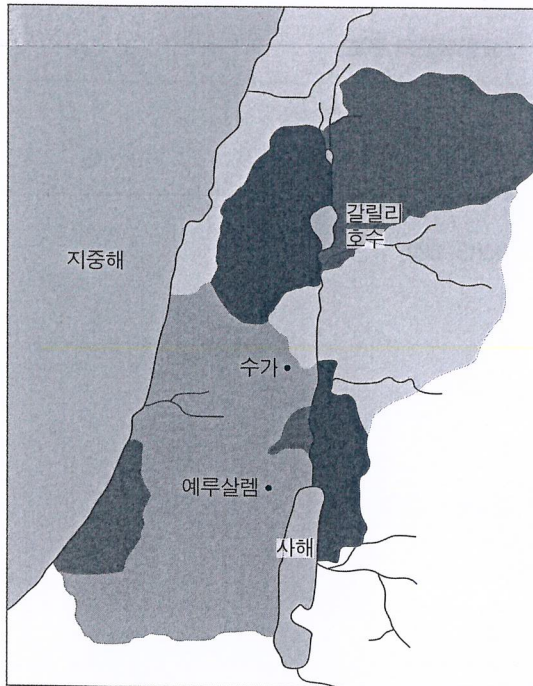


제 50 강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연구 I)

■ 성경본문 요한복음 1:1-12:50 ■

프렐류드(Prelude)



요한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십자가와 부활을 각기 특이한 신학적 관점에서 보고 수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제 4 복음서로 불리는 요한복음은 더더욱 특이한 신앙과 신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 사이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시고 말기에 한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보도하는 한편, 요한복음은 세 번에 걸쳐 예루살

렘을 방문하신 것으로 증언합니다.

(2) 공관복음은 예수의 설교와 교훈이 각기 다른 내용을 결합한 형식으로 기술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같은 주제들로 엮은 설교와 교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 수록되지 않은 이적이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적 - 요 2:1-12, 5:1-18, 9:1-12, 11:38-44, 말씀 - 요 3, 4, 6, 14-16장).

(4) 공관복음은 이적 이야기를 사건별로 서술하는 데 반해 요한복음은 이적을 영적인 교훈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5) 공관복음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6) 공관복음은 최후 만찬을 성만찬 제정에 연결하지만 요한복음은 최후 만찬을 고별설교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1-12장)는 '세상 전체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고 후반부(13-21장)는 '신앙에 대한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세상 전체에 대한 영광의 계시(1-12장)

(1) 서론(1장)

(2) "표적의 책"(2-12장)

신앙에 대한 영광의 계시(13-21장)

(1) 예수의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13-17장)

(2) 수난(18-19장)

(3) 부활(20-21장)

I.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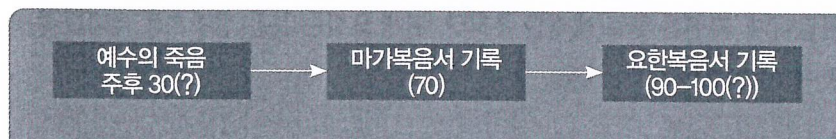
1.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요한복음 1:1-18, 43-51)
2.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요한복음 1:19-51, 3:22-30)
3.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한복음 6:35-15:1)
4. 유대교의 옛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요한복음 2:1-4:42, 7:1-9:41)

II. 시대적 배경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후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시기를 대략 1세기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때와 유사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탄압했던 것처럼, 이때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그리스도교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을 회당에서 축출하고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생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셨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요한복음 1:1-18, 43-51)

요한복음은 초기 예수의 생애와 사역은 건너뛰고 그리스도교의 대강령인 신 앙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로고스)이시고,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 천하 만물이 예수 없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그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요 1:3-4).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요(요 1:14, 18). 하나님의 아들(요 1:34, 49)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요 1:14).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습니다(요 1:32-33). 죄에 빠져 멸망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빛이신 예수를 깨닫지 못했고(요 1:6), 알지도 못했으며(요 1:10),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요 1:11).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요 1:12). 이것은 ‘성육신’(肉身) 신앙고백이고, 성육신 신학입니다.

2.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분(요한복음 1:19-51, 3:22-30)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었으며, 수많은 사람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알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라(요 1:25)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1:23)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요 1:33).

3.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요한복음 6:35-15:1)

요한복음은 “나는… 이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예수의 말씀을 많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옛날 모세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I am that I am, 출 3:14)라고 하신 말씀과 문맥상 상통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요 6:35), 세상의 빛(요 8:12), 양의 문(요 10:9), 선한 목자(요 10:11), 부활, 생명(요 11:25), 길, 진리, 생명(요 14:6),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15:1)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생명과 빛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생명입니다(요 11:25).

4. 유대교의 옛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요한복음 2:1-4:42, 7:1-9:41)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이적은 당시 형식주의에 빠진 율법주의 신앙을 새 포도주-새 신앙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징표였습니다(요 2:1-11).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심은 외식뿐인 유대교에 대한 정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참 성전임을 예시하신 것이었습니다(요 2:13-22).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요 3:1, 10)인 당시의 상류층 니고데모를 향하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예배를 그리심 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권면하신(요 4:1-42) 예수는 당시 매말라 죽어가는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생명의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적은 유대주의의 반발과 적개심을 불러 온 계기가 되었습니다.

IV. 성찰과 나눔

1.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문체, 사건, 서술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주후(AD) 90-95년은 예수 선생님이 사셨던 주후 1세기 초와 너무도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횡포와 핍박 그리고 심지어 저주까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2. 거기에 ‘육’과 ‘영’을 갈라놓고 육을 저주받은 영역으로 설교하는 ‘영지주의 파’(Gnosticism)가 교회 안과 밖을 파고들어 그리스도인들을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3. 예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난’(亂)을 피해온 시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모여든 유대 젊은이들이 큰 감화를 받고 시리아 안에 ‘유대 그리스도교인들의 모임’인 요한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희랍 사상을 가지고 희랍어를 자유로이 구사하는 엘리트 젊은이들이었습니다.

4. 이들은 고대 그리스 사상인 ‘로고스’ 사상을 도입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길과 생명으로 표현하여 낡은 유대주의와 이단 영지주의 사상을 과감히 반교하고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요한공동체에 생명과 빛, 부활의 소망을 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